

사무엘상 16:23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축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요약

신학생들은 사무엘처럼, 성도들은 다윗처럼 응답받아야 한다. 다윗에 대한 성경 구절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 삼상 16:13과 삼상 16:23이다. 이 두 성경 구절은 신학생들이 평생 항상 붙잡고 있어야 한다. 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만들었나? 왜 악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었나? 여기에 영적 권세와 이유가 들어있다. 다윗이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 서론

1. 삼상 16:13 여호와를 바라보는 순례자의 기도

▷ 순례자들의 딱 하나의 기도 = 호흡하면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저 사람에게 충만케 하소서”. 세계를 살린 사무엘과 다윗, 초대교회가 이 기도를 24 한 것(시 23:1, 시 18:1, 행 1:8)

- 1) 3초월의 응답(보좌, 시공간, 237 빛)
- 2) 내 안의 영과 영혼과 생명력이 살아나는 응답 (3Setting)
- 3)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술로 골리앗을 이긴 응답. 세계 살리는 달란트로 바뀌는 응답 받았다.

2. 삼상 16:23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 - 영적 권세를 주신 절대 이유는 많은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 1) 예수님의 첫 번째와 마지막 말씀(막 3:13-14, 막 16:15-20) -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 2) 바울이 기도로 귀신 들린 자 치유(행 16:16-18). 여호와만 바라보는 순례자의 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무한한 배경 가지고 역사. 3초월의 축복 주셨다. 이걸 체험 못 하면 될 거지고 세상 살려야 될지 모른다. 여호와만 바라보는 축복 누리면 모든 응답이 다 온다.
- 3) 세상 살리는 흑암 꺾는 무한한 배경의 역사가 일어난다. - 창 3:15 이 언약 붙잡는 순간 무한한 응답. 출 3:18 그리스도 피 언약 누리는 순간 모든 흑암은 떠나간다.

▣ 본론_ 신학생이 회복해야 할 기도

(Rev.류) 기도 제목 없다. “나에게 24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기도 30년 했는데 건강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문 여셨다.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이 언약 붙잡아야 한다.

1. 참 기도 - 여호와만 바라보는 기도

6일만 체험해보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소서. 이 기도한 순례자들이 세계 살렸다. 다른 기도 없다.

2. 24 기도 - 기적을 일으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게 온 문제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 24

3. 오직 언약과 예배할 성전 기도

이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고 다윗만큼 응답 많이 받은 사람 없다.

▷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뭐 달라, 어디로 보내달라는 틀린 기도, 내 기도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한 주간만 내 기도 제목 없애고 주를 바라보는 기도를 해보라(마 6:33). 이 순례자의 기도할 때 3초월의 응답, 무한한 배경이 생겨나고, 모든 능력과 응답 다 회복. 기도 깨닫고 24, 오직 성령으로 24, 모든 현상에 24, 이 세 가지 연결되었는데 보좌의 응답이 오기 시작. 이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을 발하는 체험 해야 사람 살릴 수 있다. 세상 살리는 흑암 꺾는 무한한 배경이 있는 축복을 체험해라.

▣ 결론_ 다윗이 한 기도 세 가지

- 1. 시간 정해놓고 깊은 기도(시 5:3, 17:3) - 정시 기도
- 2. 특별한 일 생겼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특별 기도
- 3. 더 중요한 건 24 기도

녹취

오늘은 RTS 주일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사무엘처럼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또 우리의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 지금, 사무엘과 다윗,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입니다.

우리 신학생들과 여러분들이 다윗에 대한 성경 구절 2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23절에는 수금 타는데 사울왕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갔어요.

자, 오늘 우리 신학생들은 이 사무엘과 다윗을 보면서 어떤 언약을 딱 잡아야 되겠습니까? 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악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까? 이 지금 영적 권세와 이유가 들어있는 거지요. 다윗은 지금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 서론

1. 삼상 16:13 여호와를 바라보는 순례자의 기도

오늘 우리 신학생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는 사막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게 간 겁니다. 이 언약을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사실은 많은 종교단체에서 명상하면서 호흡 가르치고 있지요. 그거는 아주 유치원생들이 하는 겁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요, 원래 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걸 누가 했나? 순례자들이 했어요. 혹시 여러분 시간 나면은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 있습니다. 은성 출판사에서 낸 책입니다. 사실적 자료가 많이 있어요. 아주 초창기 때부터 순례자들이요, 이 기도하면서 승리한 증거들이 나와요. 순례자들은 우리하고 기도가 달랐어요.

딱 하나만 기도한 겁니다. 순례자 기도는 하나만 했어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 사람에게 축복하옵소서.” 간단하죠? 그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축복한 겁니다.

근데 이 순례자들이 가면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호흡을 들이쉬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자, 길 갈 때는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걸 언제 했느냐? 어려울 때 한 게 아닙니다. 모여서 한 게 아닙니다. 24!

근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 굉장히 타락했을 때도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 주간만 체험해보세요. 잠잘 때 외에는 생각 있을 거 아닙니까? 해보시라니깐요. 일주일 동안만.

정말 만 거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몸속에 임하도록, 내게 임하게 해주옵소서.” 호흡할 때. 내릴 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역사 기록에 있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를 이겼다니깐요.

자 무슨 말이나?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주를 향해 기도한 겁니다. 24! 그 사람이 세운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뭐했습니까? 똑같습니다. 24 기도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많은 걸 달라고 합니다. 이 걱정도 하고 저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세계를 살린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만 체험해보세요. 좀 ‘내가

좀 질이 나쁘다.' 싶은 사람은 한 달만 체험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우리처럼 기도한 적이 없었나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만 바라고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루 종일. 위기 만났을 때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도 기도를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만 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다음 주 예배드리러 와야 되니까 한 주간만 체험해보시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와 그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1) 3초월의 응답(보좌, 시공간, 237빛)

이것만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3초월의 응답이 왔어요. 그렇죠? 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이 축복 누리고 있는데,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하고 있는데, 237에 빛이 비치는 축복이 왔어요.

2) 내 안의 영과 영혼과 생명력이 살아나는 응답 (3Setting)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기도만 하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력이 일어났어요. 이 기도만 했는데!

3)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술로 골리앗을 이긴 응답

이 기도만 했는데 목동을 하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목동 하던 기술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 어쨌든, 여러분은 '이게 무슨 애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틀린 기도를 계속하신 겁니다. 우리, 많은 염려를 놓고 기도하게 되지요. 많은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지요.

3초월의 응답을 받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가 달랐어요. RTS 신학생 여러분! 이 축복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중직자분들! 이 언약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말로 됩니까? "여호와와 그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기도만 했는데, 다윗은 세계 살리는 달란트로 바뀌었어요. 아니 이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었어요. 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2. 삼상16:23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 - 영적 권세를 주신 절대 이유는 많은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

오늘 본문에, 16장 23절에 "다윗에 수금을 키고 찬양하는데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갔다." 이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권세를 주신 절대 이유가 됩니까?

오늘 붙잡아야 될 제목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걸 모르는 거죠.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버렸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겁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그 무슨 소리합니까? 아니, 류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사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귀신 얘기 그렇게 많이 합니까?" 나도 옛날에 수준 높을 땐 안 했어요. 근데요, 미국의 3단체, 사로잡힌 모든 국가요, 귀신 들린 운동을 합니다. 목사님들만 모르지, 사실입니다.

1) 예수님의 첫 번째와 마지막 말씀(막 3:13-14, 막 16:15-20)

예수님이 쓸데없이, 제자를 부를 때, 첫 번째 말씀이 됩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또 전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이 눈이 뜨여야 돼요. 이 눈을 뜨고 보니 전부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말씀하셨다니까요. "만민에게로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2) 바울이 기도로 귀신들린 자 치유(행 16:16-18)

바울이 기도하고 저 빌립보 갔을 때 귀신들린 자를 고치는 역사 일어났어요. 됩니까? 우리는 이 기도만 하고 있는데, 순례자의 기도가 뭐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한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순례자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3초월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걸 체험 못 하면, 여러분은 자녀인데 뭘 가지고 세상 살려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쉽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여호와만 바라보는 축복 누렸는데, 모든 응답이 다 와요.

3) 세상 살리는 흑암 꺾는 무한한 배경

하나님이 무한한 배경 가지고 역사한 겁니다. 무한한 배경의 흐름, 배경을 보셔야 돼요. 가장 처음에 나온 단어가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무한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 두 성경 구절

은 우리 신학생들이 평생 항상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와 그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것 가지고 갔더니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갔다."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뭘니까? 여호와를 향해 바라보는 순례자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3초월의 축복이 온 거요. 이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응답을 계속 누리고 있었는데 뭘 왔습니까? 무한한 배경의 역사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피 제사 드리러 가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해도 해방이 안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해방되지 않았어요. 각종 재앙 일어나는데도 해방되지 않았어요.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어요. 이 배경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피 언약 누리는 순간부터 많은 흑암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누린 배경입니다. 이 무한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초월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한한 배경의 역사 일어나요.

▣ 본문_ 신학생이 회복해야 할 기도

저는 30년 전에 깨달았는데요. 기도 제목 없습니다. 달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24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거밖에 없어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설명할 길이 잘 없어요. 너무 믿어지는데요. 제가 30년 이 기도 했는데 하나님, 진짱니다. 아프지도 않게 했어요. 30년 이 기도 했는데,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었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다른 것 붙잡지 말고 RTS 학생들이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참 기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참 기도는 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틀리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RTS 신학생들 기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 기도만 시작하면,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일주일만 하는데도 역사 일어납니다. 다윗도 몰라요. 사울 앞에 가서 찬양하는데, 악신 들린 사울이요, 악신이 떠나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악신 들린 이 골리앗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이 귀신, 그 신 이름으로 막 저주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 왔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자기하고 싸워 이길 자 오라는 겁니다. 사울왕이 너무 겁을 먹고요, "골리앗 이기는 자 있으면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 했어요. 왕이니까 재산 좀 있겠죠. "재산 절반을 주고 사위로 삼겠다." 누가 나타납니까?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싸우러 간 겁니다. 싸우러 갔을 때, 이 골리앗이 한 일

이 하나 있어요. 다윗을 보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했잖아요. 이게 악신 들린 자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왔다.” 이거는 굉장한 영적 싸움이지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이 언약 잡고 한번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참기도 - 여호와만 바라보는 기도

첫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 기도를 회복하자. 이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 언약이 됩니까? 여호와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일주일 체험해보라니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기도한 순례자들이 세계를 살려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세계 살린 램뎀트들이 전부 이 기도한 겁니다. 다른 기도 한 게 없어요. 여호와만 바라보는 기도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호와만 바라보는 기도.

2. 24 기도 - 기적을 일으킴

두 번째입니다. 24 했습니다. 특별할 때 기도하고 이게 아닙니다. 24! 예배당에 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24! 이게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도 24!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 기도 24! 아니, 상황이 얼마나 힘들니까? 기도 24! 다윗이 그랬던 말이죠. 여러 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마는 다윗은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3. 오직 언약과 예배할 성전 기도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했는데,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무한한 배경 속에 가장 큰 게 됩니까? 언약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오직 예배할 성전. 그것만 기도한 거요. 다윗만큼 응답 많이 받은 사람 없습니다.

▷ 오늘, 우리 RTS 주일인데 전국 세계에서 우리 신학생들이 이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아, 내가 기도를 틀리게 했구나. 내가 지금부터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역사 일어납니다. 전에 제가 기도를 몰랐어요. 밤낮 틀린 기도를 한 거요. “뭘 달라, 나를 어디 어디로 보내달라, 나에게 어떻게 되게 해달라.” 나쁜 기도는 아난데 틀린 기도입니다. 어느

날요, 작정하고 기도하는데도 나는 틀린 기도만 계속한 거요.

어느 날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주소시오. 배경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요, 힘입니다.” 그 짧은 기도 하나예요. 그렇죠? 기도 응답받는 사람 쪽 보라니깐요. 기도 제목, 내 기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기도를 했는데 3초월의 응답이 온 거요. 이 기도를 했는데 무한한 배경이 생겨난 거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만 체험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놨습니다 마는 우리가 자꾸 모르고 놓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한 주간만 체험해보라니깐요. 한 주간만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없애고요, 주를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언약 그걸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우리 신학생들과 우리 신학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지요. 그래서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너무 간단한 건데요. 순례자의 기도 무엇인지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역사에 순례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나? 그거 붙잡으세요. 거기에서 모든 능력, 응답 다 회복되는 겁니다.

나에게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시간에도 해보고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있는 겁니다.

산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금식 기도도 필요하지요. 나는 사실은 금식 기도를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몰랐던 거요. 개척을 시작해가지고도 금식 기도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멋도 모르고 금식 기도한 거요. “기도원에 가자.”하고 데리고 가서 교인들하고 초창기니까 기도하고 했죠. 금식을 한 3일 하니까 엄청 먹는 생각만 난단 말이지요.

저는 금식을 하니까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게, 라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2층에서 내다보니까 우리 집사님 둘이 숨어가지고 뭘 먹는 거요. 그래서 ‘배가 고프는가 보다.’ 그거 보며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는 “금식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알아서 하고 기도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 너무 반가운지, 다 식사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내가 기도를 몰라가지고요.

기도 깨닫고부터 24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 다. 오직 성령으로. 24. 모든 현장에. 이 세 개 연 결됐는데, 여러분! 보좌의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 이거죠. 해보세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 도 안 들 겁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을 신학생이 한 번도 가지지 못했다면 세상 사람들 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래 살릴 RTS 신학생들이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 말이요. 여러분은 세상 살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시간과 초월하는 그 능력을 체험해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이 체험을 해라. 237 빛을 발하는 체험을 해라.” 그래야 목회해서요,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세상 살리는 흑암을 꺾는 무한한 배경이 있는 그 축복을 체험해라.” 이 축복은 신학생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평신도에게요. 이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 결론. 다윗이 한 기도 세 가지

말을 맺었습니다. 다윗이 한 기도 세 가지입니다.

1. 시간 정해놓고 깊은 기도(시 5:3, 17:3) - 정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깊은 기도 했어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 아침에, 그랬고요. 시편 17편 3절 보면 밤에, 그랬죠? 우리말로 하면 정시 깊은 기도입니다.

2. 특별한 일 생겼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특별한 기도

또 다윗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기도에 들어갔어요.

3. 더 중요한 건 24 기도

더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24 기도한 겁니다. 24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24 주만 바라본 겁니다. 반드시 세계 살립니다. 어떻게 24 기도만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문제 왔을 때 걱정하는 거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사람 만나보면요, 얼마나 시험드는 일이 많습니까? 그거 생각하는 거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 꺾이게 돼 있습니다.

▷ 이번 주간에, RTS 주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을 것은 참된 기도를 회복하자.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하자. 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이 반드시 현장과 지역과 나라 살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

에 이 기도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오늘은 RTS 주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응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누리는 참된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24 기도로 세계를 정복하는 기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로 흑암 꺾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 및 축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RTS 학생들과 모든 사람들이 순례자의 기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기도 하다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24 기도 속에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맛보게 하옵소서. 현장 살리는 영적 권세 있는 절대 기도를 통해서 237의 빛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예물드렸습니다. 1천만 배로 축복하옵소서. 1천만 제자 파송하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RTS 주일을 맞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RTS 후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